

강신호 동아쏘시오 명예회장 ‘약업대상’

한국제약바이오협, 제1회 시상식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사진)이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제약바이오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약바이오부문 시상식을 갖고 강신호 명예회장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원희목 회장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조선혜 한국약품유통협회장 등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주관한 3개 주관단체장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은 평생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약업계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이라며 “제1호 수상자 선정에 3개 단체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제약바이오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lee@

중기유통센터, ‘동반성장물 서비스’ 오픈

국민연금, 대중기 농업협력재단과 중기 판로지원 등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민연금공단, 대중기 농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 동반성장물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문기관인 중기유통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물은 우수한 제조역량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쇼플랫폼이다.

중기유통센터는 국민연금공단 임직

원 전용 동반성장물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유통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물 활용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신보, 창립기념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창립기념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보 창립 제44주년과 신보 노동조합 창립 제40주년을 기념해 대구 본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



현대홈쇼핑-패션산업협, 신진 디자이너 발굴 맞손

현대홈쇼핑이 한국패션산업협회와 함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판로 개척에 나선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현대홈쇼핑 본사에서 한국패션산업협회와 ‘신진 디자이너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찬석 현대홈쇼핑 사장(사진 왼쪽)이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

에쓰오일이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쓰오일은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총 52개 팀을 선발했다. 안중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오른쪽 네번째)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넷플릭스는 망중립성 말할 자격 없다



윤 위 중 의

잠시 쉼 표

학창시절 체육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돗가로 물러가 세수하고 물 마시느라 난리통이 되곤 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동시다발로 수돗물을 틀어 대다보니 물은 시원찮게 나왔고, 한 두명씩 빠져 나가면 그제서야 물이 조금씩 제대로 나오곤 했다. 수돗물이 나오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물을 사용한 때문이다.

지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터넷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지난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늘면서 인터넷을 통해 영화·드라마 등 고품질 콘텐츠를 전송하는 트래픽이 증가했으니 그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이미 자사 가입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인터넷망 사용료를

추가로 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은 ‘네트워크(망) 중립성’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넷플릭스는 통신망 운영자가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망 중립성의 핵심인 사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중립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 망중립성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CP)가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자. SK브로드밴드는 수도관(통신설비)을 제공한 업체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그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업체다. 여러 명이 많은 물(콘텐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이자, 물을 마시는 학생들(최종 소비자)에게 물을 제공해주면서 돈을 받는 기업이기도 하다. 넷플릭스 역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엔드투엔드(end-to-end) 설계구조에서 나온 개념으로, 네트워크 제공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우선한다는 개념이다. 월드와이드웹(www)의 개발자인 팀 버너스리는 2010년 11월 웹탄생 이십주년을 기념하는 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기고를 통해 “웹은 누구나, 언제든, 어디에서든, 누구하고든 허가를 받거나 수

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버너스리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사이트들은 그들에게 그토록 큰 성공을 안겨준 그 참여규칙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넷플릭스도 ‘망중립성’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역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돈을 벌고 있는 영리회사다. 인터넷제공업체(ISP)에는 망중립성을 주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CP로서 돈을 받는, 야누스 같은 존재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5월 현재 국내 가입자가 2018년보다 10배 늘어난 약 270만명이며, 한국 가입자들의 영상콘텐츠 결제금액은 지난 3월에만 3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828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글로벌 업체이기도 하다. 이런 글로벌 공룡이 망중립성을 앞세워 ‘악자 코스프레’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망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뺑 뚫린 고속도로에 커다란 트럭 수십대가 한꺼번에 다니면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그 길로 다니는 일반 차량들은 통행료를 내면서 고속도로로까지 온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면 일반 차량들은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 트럭이 수십대씩 한꺼번에 다니는 걸 예측하지 못한 채 도로를 만든 도로공사(ISP)일까, 아니면 떼지어 다니는 트럭들(CP)일까. /산부부장 yhj@metroseoul.co.kr

손보협, 200억 규모 ‘착한 소비운동’ 추진

사무비품 선구매, 식당 선결제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손해보험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착한 소비 운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손보업계는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67억 원의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토너, 복사용지 등 소모품의 선구매와 회사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통해 정부의 착한 소비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또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던 임직원 복리후생 자금을 상반기에 집행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왼쪽 두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착한 소비 운동에 참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한다.

아울러 영업실적이 우수하거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설계사 등 모집 조직에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제공하고 임직원에게는 운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사회공헌 사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해 37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가로 진행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구 등에는 공동 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인사

- ◆한국농어촌공사 ◇ 부사장·상임이사 △부사장·수자원관리 이사 이상엽 △기획전략 이사 김중필 △기반조성 이사 김병수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 강경학 ◇ 특정직 △인재개발원장한기진 △농어촌자원개발원장 조석호
- ◆교보증권 △경영기획본부장 안조영
- ◆허프포스트코리아 △부사장 송우달

부음

- ▲안승범 씨 별세, 안성근(롯데제과 홍보팀

과장) 씨 부친상 =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15호실, 발인 22일, 장지 경기도 파주 공원묘지, 02-2227-7500.

▲권중중씨 별세, 권성석(신한섬유 대표이사)·권성락(김앤장 변리사)·권성구(코스콤 NextPB추진TF부 팀장)씨 부친상 = 19일, 서울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2-860-3500.

▲정양순씨 별세, 이승삼(대한씨름협회 사무처장)씨 모친상 = 19일, 경남 창원시 MH연세병원장례식장 302호,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055-223-1000.

▲송정학씨 별세, 이찬홍(신한카드 경영지원그룹장)씨 부부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22일 오전 11시, 에덴낙원(경기도 이천시), 02-3010-2230.

▲류길웅씨 별세, 류정민(아시아경제 정치부 차장)·류정애·류정란씨 부친상, 이경철·정기민씨 장인상, 임수정씨 시부상 = 19일 오후 6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20일 오후 1시 이후 조문 가능), 발인 22일 오전 7시, 장지 충북 증평 선영, 031-900-0444.

▲박주야씨 별세, 천병혁(연남뉴스 부국장대우)씨 모친상, 류한열(교육사령부 훈련계획장교)씨 장모상 = 19일 오후 10시,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2-950-1492.